

# 합천 공약평가단, 민선8기 공약사업 점검

김선욱 기자 | 승인 2026.02.01 22:14

다목적 체육관 완공 등 9건 완료  
문화·관광·체육 분야 성과 인정



합천군이 지난달 29일 군청에서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를 열었다. / 합천군

합천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약평가단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서장의 공약사업 추진 현황 설명과 질의응답, 공약 변경사업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월 정기회의 이후 추가로 완료된 공약은 9건으로 △마늘·양파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내 관광지 입장료 지역 환원 방안 추진 △황매산 사계절 힐링 관광지 조성 △가야사 발굴 및 복원사업 확대 추진 △종목별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고품격화 추진 △권역별 파크골프장 건립 △합천 다목적 체육관 조기 완공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합천 건설 △합천왕후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평가단은 주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날 수려한 합천 브랜드 홍보타운 건립 사업에 대한 공약 변경 승인도 있었다. 기존 합천군 농기술센터 위치에 합천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기금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힐링플랫폼 1층의 기존 건물을 활용해 합천군 농특산물 홍보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김윤철 군수는 "남부내륙철도와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 등은 합천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중장기 과제들이다. 남은 기간에도 각 사업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욱 기자